

朝鮮後期 通信使의 日本文學 認識*

金 聲 振**

차 례

I. 問題의 提起

가. 부정적인 평가

II. 日本文學의 動向에 대한 認識

나. 긍정적인 평가

III. 詩文의 品格에 대한 認識

IV. 맺음말

I. 問題의 提起

조선후기사회의 일본인식은 임란 이후 고조된 적대감 및 군사력에 대한 우려와 삼국시대부터 뿌리내리고 있었던 선진문화 전달자로서의 문화적 우월의식 등이 혼재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자와 후자의 상호 연관성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고찰이 필요하겠지만, 일본에 대한 적개심과 우려가 오히려 조선의 문화적 우월의식을 강화해 주었을 것이라는 점은 쉽게 추론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에 대한 조선인의 우월의식을 강화시켜준 두 개의 중심적인 축은 도덕적 우월감과 문학적 우월감이었다. 도덕적 우월감은 일본의 문란한 성풍

* 이 논문은 [陶南學報]10輯(陶南學會, 1996)에 실린 <朝鮮後期 通信使의 紀行詩文에 나타난 日本觀 研究>의 일부를 확대·보완한 것이다.

** 釜山大學校 漢文學科 教授

속과 친척간의 혼인, 사찰이나 神社의 흥성 등 우리와 이질적인 문화풍토에 그 토대를 두고 있고, 문학적 우월감¹⁾은 주로 일본 지배층의 무지함과 일본 문사들의 저열한 수준, 통신사의 시문에 대한 일본인들의 지나친 선호 등에 의해 더욱 조장되었다. 동아시아의 봉건적 외교관행에서는 酬報能力이 곧 외교적 역량으로 간주되기도 할 정도로 문학은 국가간 외교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감안할 때, 일본에 대한 조선인의 문학적 우월감은 한일관계사 연구의 주요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통신사의 기행시문에는 일본문학 전반에 대한 상세한 언급이나 개별 작품 또는 개별 문인에 대한 진지한 비평은 나타나 있지 않다. 대체적으로 짤막한 인상적 비평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다만 甲申使行(1764)시의 기행시문인 元重舉의 [和國志]와 南玉의 [日觀記]에 '詩文之人'과 '文章'이라는 독립된 항목이 설정되어 있어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일본문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한다. 통신사행을 통한 양국간의 문화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결과, 조선의 지식인들이 문학계를 포함한 일본의 제반 분야에 대해 보다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인식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볼 수도 있다. 甲申使行에 이은 辛未使行(1811)은 대마도에서 易地交聘의 형태로 이루어졌으므로 통신사행에 의한 실질적인 한일간 문화교류는 甲申使行이 마지막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역지교빙의 형태로 이루어진 통신사행마저도 辛未使行 이후에는 단절되고 만다. 1811년을 마지막으로 해서 단절되었던 통신사행은 60여 년후에 修信使란 변형된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때 수신사로 파견되었던 金綺秀가 쓴 [日東紀遊]와 [和國志] 및 [日觀記]와의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日東紀遊]에 뒤이은 친일적 개화기문학의 전이과정을 살피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필요성과는 달리, 기존의 한일관계사 연구는 문화 내지 문학 교류보다는 정치·사회사적인 측면에 초점이 두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때, 그동안 지속적으로 한일 양국간의 문학교류에 대해 관심을 기울

1) 본 연구에서 日本文學이라 함은 日本漢文學을 의미하며, 韓日間の 文學交流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 역시 漢文으로 된 詩文에 한정된다.

여 온 이원식²⁾과 이혜순³⁾, 최박광⁴⁾ 등의 연구성과는 그 의미와 가치가 크다 할 수 있다. 이밖에 18세기 한일간의 문학교류를 통해, 동아시아 문학에서의 中華主義의 危機라는 문화사적 의미를 밝혀낸 김태준의 연구⁵⁾와 김인겸의 <日東壯遊歌>를 중심으로 한일간 문화교류의 특징과 그 의미를 천착하고자 한 소재영의 연구⁶⁾도 주목할 만하다.

기존의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일본을 文化屬國視하는 우월적 일본

-
- 2) 李元植 : <明和度の朝鮮通信使 - 成大中との筆談唱酬詩を中心に>, [朝鮮學報]84, 1977.
 ----- : <朝鮮通信使と深見玄岱 - '日光山八景和韻'詩序卷を中心に>, [日本歷史]384, 1980.
 ----- : <天和度朝鮮信使裨將洪世泰と日本信使との筆談唱酬について>, [朝鮮學報]98, 1981.
 ----- : <新井白石と朝鮮通信使 - 筆談と唱和を中心に>, [新井白石の現代的考察], 1985.
 ----- : <林羅山と朝鮮通信使>, [朝鮮學報]119-120, 1986.
 ----- : <朝鮮通信使의 訪日と筆談唱和>, [韓]110, 1988.
 ----- : <通信使行과 文化交流>, [韓日關係 學術會議 發表要旨], 한국사학회, 1991.
 - 3) 李慈淳 : <18세기 韓日文學의 교류>, [제5회 국제학술회의의논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
 ----- : <申維翰의 '海游錄'研究>, [論文集]18, 崇實大, 1988.
 ----- : <朝鮮朝 後期 使行譯官의 文化的 役割과 文學世界>, [古典文學研究]5,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90.
 ----- : <18세기 韓日文學의 교류양상>, [대동문화연구]26,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소, 1991.
 - 4) 崔博光 : <朝日間の 漢文學交流에 대하여 - 靑泉 申維翰을 중심으로>, [韓國漢文學研究] 제5집, 한국한문학연구회, 1981.
 ----- : <18세기 韓日間の 漢文學 交流 - 靑泉 申維翰과 新井白石>, [전통문화연구]1, 명지대 한국전통문화연구소, 1983.
 ----- : <唱和集에 나타난 韓日間の 詩의 교류>, [慕山學報] 제2집, 慕山學術研究所, 1991.
 - 5) 金泰俊 : <동아시아 문학의 白國主義와 中華主義의 위기 - 18세기 韓日 文學交流의 한 양상>, [日本學]6, 東國大 日本學研究所, 1987.
 ----- : <18세기 한일문화교류의 양상 - '江關筆談'을 중심으로>, [논문집]18, 숭실대, 1988.
 - 6) 蘇在英 : <18세기의 일본체험 - 일동장유가를 중심으로>, 공동연구 '18세기 일본 체험과 한일문학의 교류양상'제2부, [논문집] 제18집, 숭실대학교, 1988.

관은 거의 모든 통신사의 사행문학에 빠짐없이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한 일간 문학교류에 관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주로 문학교류의 양상을 밝히는 데 치중하였을 뿐, 일본문학 그 자체에 대한 통신사들의 시각에 대해서는 소홀히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통신사의 주된 역할 중의 하나가 문장을 통한 국위선양이었다고 할 때, 통신사들이 일본의 문학수준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은 한일간 문화교류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또한 통신사들이 일본을 문화속국시하였다면 그 근거에 깔려 있는 의식은 어떠한 것인지, 통신사들의 일본문학 인식이 문화속국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한일관계사 연구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 日本文學의 動向에 대한 認識

통신사들은 일본을 문화적으로 열등한 야만인으로 간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례상 그들과의 시문 창화에 응하면서도 정작 그들의 문학이나 문단의 동향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통신사행을 통한 양국간의 문학교류가 점차 활성화되고, 또 통신사를 통해 일본 문인들의 시문이 국내에 알려지게 되면서 단편적이긴 하지만 일본의 문인이나 그들의 작품에 대한 평가도 적지 않게 눈에 띈다. 특히 甲申使行(1764)時書記였던 元重擧의 [和國志]⁷⁾에는 ‘詩文之人’이라는 독립된 항목이 설정되어 있고, 같은 使行의 製述官이었던 南玉의 [日觀記] <總記>條에도 ‘文章’이라는 독립된 항목이 설정되어 있다. 그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일본의 문학을 독립된 항목으로 설정해서 기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일본문학에 대한 조선 후기 지식인들의 인식 변화를 짐작할 수 있다.

남옥의 ‘문장’조에서는 “문장은 그곳이 과거가 없는 까닭으로 높은 자는 혹 古體에 가까우나 낮은 자는 문리를 이루지 못한 것이 많으며, 시는 대체

7) [和國志]는 본래 작자미상으로 알려져 왔으나, 河宇鳳교수가 [화국지]의 해제를 통해 원중거의 저술임을 밝혀내었다.

로 가볍고 천박하다.”⁸⁾라 하여 종래의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으나, [和國志]의 ‘詩文之人’에서는 “요즈음 집집마다 책을 읽고 사람마다 붓을 잡으니 십수 년이 지나지 않아 오랑캐라고 비루하게 여기고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이다.”⁹⁾라 하여 일본문학의 발전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대개 이 나라 사람들은 총명하고 조숙하다. 4, 5세면 능히 붓을 잡을 줄 알고, 10여세 이상이면 모두 능히 시를 지을 줄 알며, 여자로서 詩와 書에 능한 자도 매우 많다. 아마도 唐人의 詩와 같은 것 이외에는 餘事가 없는 듯하니 비록 海中の 文明之鄉이라 한다 해도 그릇되지 않으리라. 내가 陪酬하는 자리에서 만약 말이 될만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때마다 말하기를, ‘天道가 북으로부터 남으로 온 것이 오래되었습니다. 귀국의 사람들을 보니 총명하고 秀敏하니 이는 참으로 문화가 흥성할 수 있는 때입니다……’라 하였다.¹⁰⁾

아무런 단서 없이 10여세 이상이면 ‘모두 시를 지을 줄 안다.’고 하는 표현부터가 놀라운 인식의 변화인데도 한결을 더 나아가 ‘海中の 文明國’이라고까지 극찬하고 있다. 비록 陪酬하는 자리라는 상황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天道가 북으로부터 남으로 온 것이 오래되었다.’는 발언은 이전같으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성격의 것이다. 원중거가 엄격한 朱子學者로서의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¹¹⁾는 점을 감안할 때 더욱 그러하다. 일본에 대한 인식 변화가 다름아닌 일본의 문학에 대한 인식 전환에서 촉발되었다는 점은 한 일간의 문화교류사에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

일본 문학에 대한 원중거의 이같은 긍정적인 발언 이전에도 일본의 문학 적 수준을 인정하는 흐름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復命하는 丙子使行(1636)을 인견한 仁祖가 ‘일본인으로서 글에 능한 자가 있느냐’고 묻자, 上

8) 南玉：[日觀記] 卷10 <總紀> 文章條, ‘文以其無舉業也 故高者或近古 卑者多不成理 詩則大體輕淺’

9) 元重舉：[和國志] 卷2 而71, ‘見今家家讀書人人操筆 差過十數年 則恐不可鄙夷而忽之也’

10) 앞과 같은 곳, ‘大抵國中之人 聰明早成 四五歲能操筆 十餘歲以長 則咸能作詩 女子之能詩能書者甚衆 殆若唐人之詩 外無餘事 雖謂之海中文明之鄉 不爲過矣 余於唱酬之席 如得可語之人 則輒曰 天道自北而南久矣 觀貴國之人 聰明秀敏 此誠文化可興之日’

11) 河宇鳳：<解題>, [和國志], 亞細亞文化社, 1990.

使인 任統은 ‘文理를 이루지 못했고, 시는 더욱 좋지 않았습니다.’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金世濂은 ‘召長老와 璘西堂의 글이 다 좋았고, 그 나라 안에서 오직 道春의 글이 제일이었습니다. 沿路 및 江戶에서는 와서 묻는 자가 많았는데, 다 理氣·性情 등의 말을 물으니 야만인이라고 알볼 수 없습니다.’라고 답하여 일본을 무조건 夷狄視해서는 안된다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¹²⁾ 그리고 비록 일본인들의 말을 전하여 기록한 것이기는 하지만, 壬戌使行(1682)時 역관으로 수행했던 洪禹載 역시 ‘詩書에 능한 자가 곳곳에 있어 장차 문운이 크게 일어나리라 한다.’¹³⁾고 적고 있다.

원중거나 김세렴처럼 예외적인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일본의 개별 문인에 대해서는 간혹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 통신사의 기행시문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흐름이다. ‘일본의 문장은 소경이라 해도 가하다.’¹⁴⁾ ‘왜인이 상등이라고 칭하는 자가 이와 같은 데에 불과하였다.’¹⁵⁾ ‘소위 文士라는 자들이 흔히 代作을 받아왔는데, 그 대작을 받을 적에는 반드시 저희들 중에서 훌륭한 것을 뽑았을 것이지만 詩律에 있어서는 제대로 된 것이 없었다.’¹⁶⁾ ‘문학과 詩律로 그중에서 조금 나은 자는 白石 源興과 伊藤維楨의 무리 몇몇 사람에게 불과할 따름이고, 이밖에 某某라 일컫는 자가 있으나 모두 기록할 바가 못된다.’¹⁷⁾라는 식의 표현은 일본의 문학적 수준에 대한 통신사들의 인식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일본의 대표적 문인인 源興를 문학과 詩律에서 ‘조금’ 나은 자라고 할 정도이니 여타의 문인들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 없다. 심지어 대대로 일본의 문학을 맡아 국가에서 쓰는 모든 문장을 지어내었던 집안인 太學頭 林信篤의 문필조차도 졸렬하고 투박하여 모

12) 金世濂 : [海槎錄] 丁丑年 3月 9日條, 내용요약.

13) 洪禹載 : [東槎錄] 壬戌年 7月 21日條, ‘能通詩書者 處處有 文翰將興云矣’

14) 趙巖 : [海槎日記] 甲申年 6月 18日條, ‘文章則謂之韓朦 可也’

15) 申維翰 : [海游錄] 下 聞見雜錄, ‘倭人所稱上駟 不過如此’

16) 卍命采 : [奉使日本時聞見錄] 坤, 戊辰年 6月 12日條, ‘所謂文士: 多受代作而來 其受代作 必採自類中表 表者而至於詩律 未有成樣者’

17) 卍命采 : [奉使日本時聞見錄] <聞見總論>, ‘以文學詩律 翹楚其中者 不過如白石 源興伊藤維楨輩 若而人而已 此外雖有某某所稱 俱無足可記’

양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비판하고 있다.¹⁸⁾

통신사들은 일본의 문학이 이처럼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유를 일본의 身分制度和 文章讀法, 音韻上의 特異性 등에서 찾았다.

나라에 四民이 있으니, 兵·農·工·商인데, 士는 그 중에 들지 아니하였다. …… 대개 사민 외에 따로 儒學과 僧徒와 醫學이 있다. 그러나 國俗에 의하면 사람을 살리는 공이 있기 때문에 의학이 上等이 되고, 승도는 다음이 되고, 儒는 末等이 된다. 소위 儒라는 자는 詩文 짓는 것을 배우기는 하지만 과거에 올라 벼슬할 길이 없다. 그러므로 만약 이름을 얻어 각 주의 記室이 될 수 있으면 능히 수백 석의 봉급을 먹어 평생을 마치고, 자리를 얻지 못하면 군사에 들기를 구하던지 또 의학에 붙어서 산다. …… 내가 보매 그 풍속이 문장으로써 사람을 쓰지 아니하고 또한 문장으로써 公事를 하지 아니하여, 관백 이하 각 주의 태수와 모든 관리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문장을 아는 자가 없다. …… 序文·記文·雜文을 짓게 하면 눈먼 뱀이 갈대밭에 달리는 듯하여 법도와 기운이 하나도 볼 것이 없다. 이것이 여찌 인재가 정한 한도가 있어 그러한 것이라? 그 土風과 政教가 구에서킨 것이다.¹⁹⁾

글하는 선비는 兵·農·工·商과 儒學·僧徒·醫學의 여러 계층 가운데 말등인데, 과거에 올라 벼슬할 길이 없어 記室이 되거나 兵家 또는 醫學에 기탁해서 산다는 것이다. 문장으로써 사람을 쓰지 않고, 문장으로써 公事를 하지 않으며, 관백 이하 각 주의 태수와 모든 관리들이 하나도 문장을 아는 사람이 없다 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문장'이 漢文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현실적으로 전혀 쓰일 일이 없으므로 漢文 詩文의 撰作에 전혀 힘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지막 부분의 土風과 政教의 拘碍란 바로 이같은 문사의 열등한 지위와 과거제도의 불비, 한문 시문에 대한 집권층의 무관심 등을 가리킨 것으로 볼 수 있다. 賁命采의 지적은 보다 분명하다. 그의 말

18) 앞의 책 9月 29日條, '世掌日本文學 凡爲國用詞翰 皆出於其家 爲門徒而被薦食祿者數十人 然觀其文筆 拙朴不成樣'

19) 申維翰: [海游錄] 下 <聞見雜錄>, '國有四民 曰兵農工商 而士不與焉……蓋於四民之外 別有儒學僧徒醫學 然國俗 醫則功在活人 故醫爲上 僧徒次之 儒爲末 所謂儒者 學爲詩文 而無科舉仕進之路 故苟得聲譽 而爲各州記室 則能食累百石廩米以終其身 不得則求入於兵家 又托於醫……今觀其俗 不以文用人 亦不以文爲公事 關白以下各州太守百官之職 無一解文者……使之爲序記雜文 則又盲蛇走蘆田 法度與詞氣 無一可觀 是豈人才有定限而然哉 其土風與政教 有以拘之也'

에 따르면 일본은 '나라에 과거제도로 사람을 취하는 법이 없고 또한 이것에 의하여 현달되지 못하니, 비록 총명하고 재주가 있는 사람들도 스스로 포기하고 무무한 것을 달게 여긴다.'²⁰⁾는 것이다.

그들의 文章讀法과 音韻 역시 앞에서 거론한 요소들 못지 않게 일본의 문학 발전을 가로막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예를 들어 '馬上逢寒食'을 읽을 적에는 逢을 寒食의 밑에 읽고, '忽見陌頭楊柳色'을 읽을 때에는 見을 楊柳色의 뒤에 읽는다는 것이다. 山川·地名·六甲·姓名·職號 등을 모두 방언으로 해석해 읽을 뿐 아니라, 그 字음이 淸濁과 高低가 없으므로 시를 배우고자 하면 먼저 여러해동안 韻書를 공부해서 음의 高低를 익힌 후에 억지로 맞추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하였다. 이처럼 문자를 학습하기 어려우므로 비록 높은 재주와 통달한 식견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백 배 이상 노력을 해야 하며, 따라서 代를 지나도 이름난 文人·韻士가 없고 그 중에 한두 사람 붓을 잡는 무리도 또한 그 명성을 國中에 날릴 수가 없다는 것이다.²¹⁾

일본의 文風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적이 주목된다.

일본의 글짓는 자들은 모두가 唐宋八大家抄만을 읽고 익히며 오로지 이를 숭상한다. 그러므로 心情을 서술한 長卷을 보면 논리가 풍부하고 말이 유창한 것이 있으나, 시에 있어서는 사람마다 唐詩를 배우려 한다고 말하면 서도 한 구절도 옛 사람의 것과 비슷한 것이 없었다. 그것은 대저 해외에서 오랑캐의 말을 지껄이는 곳이 되어 성률이 전연 어긋나므로, 운문을 짓는 것이 서술문보다 백 배나 되는 때문이다. 간혹 편지로써 문기를, "명나라 王弇州·李于鱗 등의 문장이 당나라 구양수·소식과 어느 것이 낫습니까?" 하나, 그들 중에 명나라 사람의 문장을 배우는 자를 나는 보지 못하였다.²²⁾

이글에서 우리는 일본의 문풍에 관한 세가지 관점을 엿볼 수 있다. 우선

20) 宙命業：[奉使日本時聞見錄] <聞見總錄>，'國無科制取人之法 亦藉此而不見顯用雖有聰穎才藝之類 暴而自棄 甘於質實'

21) 申維翰：[海游錄]下 聞見雜錄，해당부분 요약.

22) 앞과 같은 곳，'日本爲文者 皆以八大家文抄 讀習專尙 故見其長書寫情 則或有理贍而辭暢者 詩則人人自謂欲學唐音 而無一句畫虎於古人 夫以海外兜離之鄉 聲律全乖 韻語之難 百倍於敘述之文故也 間有人以書來問曰 皇明王季(李의 잘못:筆者註)諸家 與歐蘇孰賢云云 而渠輩之學習明人者 亦未之見也'

일본 문인들은 문에 있어서는 唐宋古文, 시에 있어서는 唐詩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일본인들이 간혹 明代의 대표적인 秦漢古文派인 王允州·李于鱗의 문장에 비평을 구하기도 하나, 그들 중에 명나라 문장을 배우는 자를 보지 못하였다 하여 일본 문학의 후진성을 넌즈시 비판하고 있다. 요컨대 일본의 문학계는 중국과 조선이 새로운 문학사조로 나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唐宋八大家에만 집착하고 있으며, 明代의 문학사조를 운운하는 자들이 있기는 하지만 明代 문장을 배우는 자를 보지 못하였다 하여 일본 문학의 후진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일본인들이 성물에 어둡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본 문인들은 시보다는 산문에 특징이 있다는 것이다. 聲律에 어두운 것이 일본어의 음운상 특징과도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 견해는 앞에서 거론한 바 있는데, 성물에 어둡기 때문에 시를 짓는 것이 산문보다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본 것이다. ‘필답이나 짧은 편지를 주고 받아보면 창졸간의 수작에 기이하고 아름다운 말이 많다.’²³⁾라고 한 것이나 ‘시는 아직 다듬어지지 못해 말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文이 좀 나은 편이지만 역시 본 궤도에는 어둡다.’²⁴⁾고 한 것 역시 일본 문학의 이같은 詩低文高 현상을 지적한 것이다.

중국의 인명·지명을 빌려 시문을 짓는 것에 대한 논란은 우리나라에서도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것인데, 통신사들에게는 일본 문학 역시 이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진 것 같다.

일본의 시나 문 가운데 그 땅의 산수를 두고 짓는 자가 쓰기를 秦山이니 楚水니 洛陽이니 長安이니 吳越이니 燕이니 蜀이니 하였으므로 그 글을 읽으면 일본인지를 모르게 된다. 저들은 그들의 지명, 인명이 모두 이상하고 기괴하여 문장을 짓기 어려우므로 중국의 지명을 빌려서 그 누추함을 꾸미는 것이다. 또 그 땅에는 피꼬리와 까치가 나지 않는데도 경치를 묘사하면서 피꼬리가 울며 까치가 지저귄다고 말한다. 음악에서 거문고와 비파를 쓰지 않으면서도 일을 서술하면서 거문고를 타며 비파를 두드린다고 한다. 冠이 없는데도 巾을 비스듬히 쓰고 있다고 하는가 하면, 띠가 없는데도 錦帶라느니 玉佩라느니 하고 말한다. 모두가 헛된 이름을 쓰고 실지에 맞는 말

23) 앞과 같은 곳, ‘與之爲筆談短簡 則倉卒應對 或有奇言美談’

24) 任守幹: [東槎日記] <聞見錄>, ‘作詩未工 語多不成 行文稍勝 而亦味蹊逕’

을 짓지 못한다.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도 또한 간간이 범하는 일이다.²⁵⁾

일본의 산수를 두고 시문을 지으면서도 중국의 산수와 지명을 그대로 쓴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일본의 이상하고 기괴한 인명과 지명에서 찾았다. 단순히 중국과 다르다고 하지 않고 ‘이상하고 기괴하다’고 하여 일본에 대한 멸시감을 드러내고 있다. 또 피꼬리가 울고 까치가 지저귄다거나, 거문고를 타며 비파를 두드린다고 하고, 쓰지도 않는 錦帶나 玉佩같은 문자를 쓴다며 실지에 맞지 않는 말을 쓰고 표현하는 일본의 문풍을 꼬집고 있다.

신유한이 일본의 문풍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한 데 비해, 원중거는 ‘詩文之人’이라는 독립된 항목을 통해 개략적이긴 하지만 日本漢文學의 史的 脈絡을 기술하고 있어 주목된다.

天武天皇의 둘째아들은 大友이고 그 동생은 大津인데, 재주와 학식이 있었으며 문필을 더욱 좋아하여 詩賦의 흥기는 이로부터 시작되었다. 五言詩는 大友로부터 시작되었으며 七言詩는 大津으로부터 시작되었다. 五言十句詩는 紀麻呂로부터, 七言長篇은 紀古麻呂(紀麻呂의 아들:原注)로부터 시작되었고, 七言四句는 紀男人(紀麻呂의 손자:原注)으로부터 시작되었다. 人君의 詩文은 天武天皇으로부터 시작되었고 佛家의 시는 智藏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女子의 시는 大伴으로부터 시작되었고 和韻의 법은 大津으로부터 시작되었다.²⁶⁾

원중거는 일본의 5언시와 7언시, 5언 10구시, 7언장편시, 7언4구시 등 여러 형식의 詩와 人君詩文·佛家詩·女流詩·和韻詩 등의 여러 분야의 詩의 유래를 밝히고 있다. 이에 이어 앞서 거론한 각 詩體의 첫 작품에 해당하는 大友의 5언시 <述懷詩>, 大津의 7언시 <游獵詩>, 智藏의 佛家詩 <秋日言

25) 申維翰: [海游錄] 下 <聞見雜錄>, ‘日本詩文中 直賦其地山水者曰 秦山楚水洛陽長安吳越燕蜀等語 讀之而不知爲日本也 彼其地名人號 皆殊怪 難以爲文 故假用中華 以文其陋 又如國不產鶯鶯 而寫景曰 鶯啼鶯噪 樂不用琴瑟 而敘事曰 彈琴鼓瑟 無冠而曰 岸幘欵巾 無帶而曰 錦帶玉佩 皆用虛名 而不能作稱情之詞 此則我國人亦往往犯戒’

26) 元重舉: [和國志] 卷2 <詩文之人>, ‘天武天皇第二子 曰大友 其弟曰大津 有才學 尤愛文筆 詩賦之興 自此始 五言詩肇大友 七言詩肇大津 五言十句肇紀麻呂 七言長篇肇紀古麻呂(紀麻呂之子:原註) 七言四句肇紀男人(紀麻呂之孫:原註) 人君詩文自天武天皇始 釋氏詩 自智藏始 女子詩 自大伴姬始 和韻之法 自大津始’

志>, 仁德天皇의 人君詩 <咏月>, 紀古麻呂의 7언長篇 <望雪長篇>, 大伴姫의 女流詩 <晚秋述懷> 등을 인용하였다.

원중거는 각 詩體의 첫 작품들을 인용한 후, 각 지역별로 원중거의 滯日 당시 문명을 날리던 대표적인 문인들을 간략한 평가를 덧붙여 기술하였다. 江戸의 柴邦彦과 岡明倫, 名護屋의 岡田宜生과 源正卿, 西京의 岡白駒·播摩清·絢芥煥, 大坂의 永富鳳과 木弘恭, 備前州의 井潛과 近藤篤, 長門州의 瀧長凱와 草安世, 筑前州의 龜井魯 등이 바로 그들이다. 원중거는 이들의 문학적 수준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였을 뿐 아니라, 일본에서는 '4, 5세만 되면 붓을 잡을 줄 알고 10여세 이상이면 모두 시를 지을 줄 안다' 하면서 일본을 '海中の 文明之郷'이라 해도 좋을 것이라 하여 일본의 문학적 수준을 높이 평가하였다. 당시의 분위기로 보아, 일본의 문학적 수준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놀랄 만한데, 일본문학의 원류뿐 아니라 당시에 이름이 높던 일본작가들의 문학적 수준에 대한 호의적 短評까지 곁들이고 있는 것은 엄청난 인식의 변화라고 아니할 수 없다.

Ⅲ. 詩文의 品格에 대한 認識

통신사들은 대체로 일본의 문학이 아직 저급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산문보다는 시에 대한 비판이 두드러져 보인다. 호의적인 평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몇몇의 문인에게만 한정되어 있다. 이는 물론 일본에 대한 우월의식의 반영이기도 하고, 詩文唱酬를 통한 양국간 대결의식의 소산이기도 하다. 산문에 대한 평가는 그다지 눈에 띄지 않고 시에 대한 印象的 短評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특정 작품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대체로 문인 개인의 시문을 포괄적으로 비평하고 있다.

가. 부정적인 평가

己亥使行時 신유한이 赤間關에 머무르고 있을 때, 草場中章이라는 문인이 신유한에게 편지를 보내어 자신의 시문에 대한 비평을 구한 일이 있었

다. 그는 이 편지에서 자신이 ‘일찌기 남경 사람 맹씨란 자에게 배워서 중국 대가의 체를 얻었다.’며 문학적 자부심을 드러내었다. 하지만 신유한은 그의 시문에 대해 ‘괴이하고 험하고 궁벽하여 한 마디도 알 수가 없었다.’는 말로써 자신의 비판적인 입장을 피력하였다. 비록 天地·日月·山川·草木 등 보통 쓰는 말도 반드시 古字와 기이한 글자라 하면서 이상스러운 글자로 변경하여 써서 사람들로 하여금 읽지 못하도록 하기에만 힘쓰니, 참으로 측간 귀신이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었다.²⁷⁾ ‘중국 대가의 체를 얻었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문인의 시문에 대해 괴이하고 험하고 궁벽하여 한 마디도 알 수가 없었다고 할 정도이니, 일본의 문학적 수준에 대한 신유한의 인식이 어떠했는가를 알고도 남음이 있다.

林道春 一家의 시문에 대해 통신사들이 어떤 식으로 보았는가를 살펴보면, 당시 통신사들이 일본의 문학적 수준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를 어느정도 짐작할 수 있다. 이들은 대대로 일본의 문학을 달아왔을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쓰는 문장이 모두 이들 가문의 손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乙未使行(1655)時 從事官이었던 남용익이 그당시 일본에서 문사라고 칭해지던 대표적 문인이라며 열거한 8인 중²⁸⁾에 林道春과 그의 아들 林恕·林靖, 林恕의 아들 林春信 등 4명이 들어 있는 것만 보더라도 이들이 일본 문단에서 차지했던 위치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문학적 역량에 대한 통신사들의 평가는 다음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상당히 부정적이다.

- 林道春: ‘그가 지은 바의 詩文을 보니 해박하고 풍부하여 고서는 많이 읽었으나 詩는 전혀 격조가 없고, 文도 蹊徑에 어두웠다.’²⁹⁾
- 林 恕(道春의 子): ‘詩文을 조금 안다.’³⁰⁾
- 林信篤(恕의 子): ‘문필을 보니 졸렬하고 소박해서 제대로 이루지 못하였

27) 申維翰: [海游錄]上, 己亥年 8月 18日條, 해당부분 내용 요약.

28) 南龍翼: [聞見別錄] <人物>, ‘稱爲文士者八人’條, 남용익이 든 8인으로는 이들 외에 人見友元, 藤潛, 源尙勝, 李全直 등이 있다.

29) 南龍翼: [聞見別錄] <人物>, ‘觀其所爲詩文 則該博富瞻 多讀古書 而詩則全無調格 文亦猶昧蹊徑’

30) 앞과 같은 곳, ‘稍解詩文’

다.³¹⁾

‘시문은 하나도 들을 것이 없다.’³²⁾

- 林信智(信篤의 子): ‘그 시를 자기로서는 잘된 것이라 이르나 말이 되지 않는 것이 많다.’³³⁾
- 林信充(信篤의 子): ‘나에게 지어준 시도 또한 많은데, 더욱 보잘 것이 없었다.’³⁴⁾
- 林信言(信充의 子): ‘필담을 나누었으나 文筆에 불만한 것은 없었다고 한다.’³⁵⁾

이들 가문이 비록 太學頭를 세습하고 대대로 國子祭酒를 맡고 있기는 하지만, 명목상으로 일본의 문학과 학문을 대표하고 있는데도 한결같이 ‘격조가 없다’ ‘졸렬하다’ ‘들을 것이 없다’ ‘보잘 것 없다’ ‘불만한 것이 없다’는 식으로 혹평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임씨 가문의 문학에 대한 통신사들의 혹평은 일본 문학 전반에 대한 통신사들의 당시 인식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도춘의 가문에 대한 혹평과는 달리, 對馬島 記室인 接伴長老 松浦儀의 시를 평하여 ‘자못 재치와 정은 있으나 기력이 미치지 못하여 孤澹한 것을 면하지 못한다.’³⁶⁾고 한 것을 보면 그 문학적 가치를 부분적으로나마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林信篤 門徒들의 시를 가리켜 ‘그들의 시는 밥을 먹다가 뽕을 정도’³⁷⁾라 한 것이라든지 筑前州 記室인 琴山과 梅峰의 시를 가리켜 ‘모두 졸하고 투박하여 우스웠다.’³⁸⁾라고 평한 것을 보면, 이들 시문을 아예 거론할 가치조차 없는 것으로 치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밖에 ‘말할 거리도 못되었다.’라든지 ‘불만한 것이 없었다.’ ‘치졸하여 읽을 수가 없었다.’ ‘語理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가 모두 졸렬하다.’라는 식의 평가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31) 申維翰; [海遊錄] 中 11月 29日條, ‘觀其文筆 拙朴不成樣’

32) 앞의 책 下 <聞見雜錄>, ‘詩文則無一可觀’

33) 앞과 같은 곳, ‘其詩自謂佼佼 而尤不足觀’

34) 앞과 같은 곳, ‘所贈詩亦多 而不足觀’

35) 趙曦; [海槎日記] 甲申年 2月 22日條, ‘筆談而文筆無可觀云’

36) 申維翰; [海遊錄] 下 <聞見雜錄>, ‘爲詩才情頗繁 而力不逮 未免於孤澹’

37) 앞의 책 中 12月 3日條, ‘詩如噴飯滿案 無足道者’

38) 앞의 책 上 8月 3日條, ‘皆拙朴可笑’

이같은 평가는 대개 특정 가문이나 특정 문인을 대상으로 한 시문평이다. 그러나 다음의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일본 문학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 역시 대체로 부정적이다.

- 승려들 외에 문사로 일컫는 사람들은 반드시 머리를 깎고 혹 法印이라 칭하지만 실제로는 승려가 아니다. 소위 行文은 제법 하기는 하나 아직도 蹊徑이 어둡고 시는 더욱 형편이 없어서 억지로 꾸민 말이 많다.³⁹⁾
- 일본사람으로서 나와 마주 앉아 시를 지어 주고받는 자는 대개 조잡하고 막혀서 말이 되지 않는 것이 많다.⁴⁰⁾
- 소위 문사라는 자들이 흔히 代作을 받아왔는데, 그 대작을 받을 적에는 반드시 지회들 중에서 훌륭한 것을 뽑은 것이겠지만, 詩律에 있어서는 제대로 된 것이 없었다.⁴¹⁾

조잡하고 막혀서 말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억지로 꾸민 것이 많아 아예 거론할 가치조차 없는 것으로 치부하고 있다. 唱酬하는 시뿐 아니라 자신들의 작품 가운데 뛰어난 것을 가려 뽑아온 것조차도 제대로 된 것이 없을 정도라 하여, 일본 문단의 수준을 형편없는 것으로 폄하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일본문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문보다는 시쪽에 집중되고 있으며, 통신사들이 직접적으로 접하게 되어 있었던 일본의 太學頭 林道春의 가문이나 각 주의 記室에 대한 혹평이 두드러진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긍정적인 평가

통신사들이 일본의 문학을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에서 기술하고는 있지만 몇몇 문인들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나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리고 이와같은 현상은 18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더욱 두드러진다. 이는 임란 직후의 감정적인 적개심에서 벗어나 일본을 객관적으로 인식하

39) 南龍翼; [聞見別錄] 文字條, ‘僧徒外稱爲文士者 必剃髮 或稱法印 而實非僧人也 所謂行文頗勝 而猶昧蹊徑 詩則尤甚無形 多有強造語’

40) 申維翰; [海遊錄] 下 <聞見雜錄>, ‘日本與余對坐酬唱者 率多粗疎遜劣 語無倫序’

41) 盧命采; [奉使日本時聞見錄] 坤 戊辰年 6月 12日條, ‘所謂文士多受代作而來 其受代作 必採白類中表表者 而至於詩律 未有成樣者’

러는 의식의 전환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통신사들의 눈에 경이적으로 보였을 만큼 잘 발달된 출판문화와 학문풍토 등을 직접 접하면서 일본의 문화적 환경에 대해 재인식하게 되었던 데에 힘입은 바 크다.

일본 문인으로서 통신사들로부터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문인은 新井白石이다. 그는 戊辰使行(1748)의 從事官이었던 賁命采가 말한 ‘몇몇 사람에게 불과한 뛰어난 문인’이라고 칭찬했던 문인중의 한 사람이다. 그의 시집은 辛卯使行(1711)의 正使였던 趙泰億에 의해 국내에 유입되어 국내 문단에 어느 정도 알려졌던 듯하다.⁴²⁾

源璵는 재주가 족히 古文을 알 만하고 시를 짓는 것이 자못 운치가 있어서 그의 저술인 白石集이 세상에 행한다. 그의 스승 木下順庵이 또한 박식과 글 잘하기로 소문이 났으므로 일시에 문학을 좋아하는 무리들이 차차 세상에 진출하여 쓰이게 되었는데, 그 문장이 간간히 청도할 만한 것이 있어 지금토록 강호와 지방의 모든 사람이 畵林 藝苑에 힘을 쓰는 자가 있으니, 훌륭하다 할 수 있다.⁴³⁾

‘족히 古文을 알 만하다.’는 표현은 상당히 호의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는데, 시 짓는 것 역시 자못 운치가 있다고 하면서 그의 영향으로 江戸와 지방의 모든 사람이 학문과 문예에 힘을 쓰게 하였으니 훌륭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辛卯使行(1711)時 任守幹은 백석이 지은 詩卷의 서문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詩가 자못 淸高하고 볼 만하다.’⁴⁴⁾ 하여 써준 일이 있었고, 위의 문장을 쓴 신유한은 백석의 시에 대한 비평을 청하는 松浦儀에게 ‘그 시가 곱고 명랑해서 중국 사람의 격이 있었습니다.’⁴⁵⁾라고 답

42) 申維翰의 [海游錄] 冒頭에는 崔昌大가 서가에 있는 [白石詩草]를 꺼내어 신유한에게 보여주었다고 되어 있는데, 申維翰은 자신이 대마도 記室 松浦儀와 필담을 나눌 때에 ‘신묘년에 사신으로 왔던 平泉 趙泰億이 그사람(白石)의 시초를 얻어와 가지고 돌아와, 매양 재주를 칭찬하는 말이 떠나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있다.

43) 申維翰: [海游錄] 聞見雜錄, ‘源璵者 才足以識古文 爲頗有聲響 有白石集 行于世 其師木順庵 亦號博識能文章 一時好學之徒 稍稍進用於世 其文辭往往可稱 至今京外諸人 着力於畵林藝苑者 可謂盛矣’

44) 任守幹: [東槎日記] 坤 <江關筆談>序, ‘詩頗淸高可觀’(原文의 鳥는 高의 잘못인 듯: 筆者註)

45) 申維翰: [海游錄] 上, 己亥年 7月 19日條, ‘婉朗有中華人風調’

한 일이 있었다.

三宅緝明도 통신사들로부터 호의적인 평가를 받았던 몇 안되는 문인 중의 한 사람이다. 신유한은 그의 문장을 평하여 ‘문장이 활발하여 倭中の巨擘이라 할 수 있었다.’⁴⁶⁾고 하면서 ‘시를 짓는 것은 문보다는 못한 듯하나 간간이 운치가 있었다.’⁴⁷⁾고 했다. ‘간간이’라는 유보적인 문구를 쓰기는 하였지만 林道春의 일가나 여타 문인들에 대해 신유한이 가했던 혹평을 감안하면, 三宅緝明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긍정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임수간은 그를 평하여 ‘그 문재를 볼 만했다.’⁴⁸⁾고 하면서 그의 시문을 보니 ‘그 문사가 자못 풍부하고 창달하다.’⁴⁹⁾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중거는 일본문학을 대체로 긍정적인 시각에서 인식하고 있었다. 원중거가 거론한 문인들과 그들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⁵⁰⁾

- 柴邦彦: 문장의 기세가 자못 웅건하다.(文氣頗健)
- 源 雲: 老成한 풍도가 있다.(有老成之風)
- 井 潛: 풍부하고 민첩하다.(瞻敏)
- 近藤篤: 침울하고 청정하다.(沈靜)
- 瀧長凱: 자못 老成하다.(頗老成)
- 草安世: 조금 청수하다.(稍清秀)

앞서 언급한 것처럼, 통신사들은 일본의 시에 대해서는 혹평을 하거나 칭찬을 하더라도 유보적인 문구를 사용하는 것이 통례이나 원중거는 시만을 언급하면서도 부정적인 언급은 거의 없다. ‘老成하다’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 역시 그가 일본문학의 수준을 높이 평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더구나 지역별로 대표적인 문인들을 선별하여 평한 것은 일본문학에 대한 통신사들의 진일보한 시각과 관심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원중거가 거론한 위의 문인들에 대해서는 그와 함께 甲申使行(1764)時

46) 申維翰: [海游錄] 上, 己亥年 9月 4日條, ‘筆力矯矯 可謂蠻中巨擘’

47) 앞의 책 <聞見雜錄>, ‘滄溟爲詩 似不及於文 然往往沈實有致’

48) 任守幹: [東槎日記] 乾 日記補, 辛卯年 11月 2日條, ‘文才可觀’

49) 앞의 책 <江關筆談>, ‘以詩文見贈 其文辭頗瞻暢’

50) 元重舉: [和國志] 卷2 <詩文之人>.

正使로 渡日했던 趙曦의 [海槎日記]에도 거의 비슷하게 소개되어 있다. 양자의 기록은 일본 문사들을 기록하는 순서뿐 아니라, 그들의 문학에 대한 평가까지 거의 흡사하다. 원증거처럼 ‘詩文之人’이란 독립된 항목을 설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사행길에서 文士에 대해 보고 들은 것으로써 말하면’(以今行所聞見於文士者言之)이라는 구절로 문장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 양자가 유사한 경로로 일본의 문학에 대해 보고 들었던 것 같다. 하지만 文士에 대한 서술은 양자가 서로 비슷하면서도 일본 문학 전반에 대한 평가는 판이하다. 원증거는 일본의 문학적 분위기로 보아 일본을 ‘海中の文明之郷’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한 반면에 조엄은 ‘일본의 문장은 소경이라 해도 가하다.’(文章則謂之瞽矇可也)이라 하여 폄하하였다.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일본문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재인식하고자 하는 흐름이 나타나기는 하였지만, 일본문학을 의도적으로 폄시하는 분위기는 여전하였던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통신사들은 일본 문인들이 시보다는 문쪽에 특장을 지닌 것으로 보아 산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편이다. 이러한 평가는 ‘儒家의 學術 및 明末 諸家の 실을 서술한 한 편의 문장이 자못 불만하였다.’⁵¹⁾라든가 ‘저술한 詩論과 文論이 氣勢는 스승에 미치지 못하나 論議는 자못 보다 낫다.’⁵²⁾ 또는 ‘그 중에 柳鏞이란 자가 있어 호는 震澤이었는데 왜인중에 가장 걸물이었다. 문장이 浩汗하고 雄健하여 寒山の 한 조각 돌이라 할 수 있다.’⁵³⁾ 라는 등의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산문에서의 논리의 치밀성이나 기세의 강건함 등에 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밖에 소박하고 솔직한, 의론의 특이성, 해박함과 풍부한 등도 산문에서의 특장으로 거론되고 있다. 시에 있어서는 表現上的 才致와 抒情性, 平順함, 精峭함, 韻致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일본문인들이 시보다는 문

51) 任守幹 : [東槎日記] 乾 8月 19日條, ‘其文一篇 論儒家學問及明末諸家之說 叙致頗有可觀’

52) 趙曦 : [海槎日記] 甲申年 6月18日條, ‘有所論詩論文論 光焰則不及其師 而論議則頗勝之’

53) 申維翰 : [海遊錄] 中 11月 4日條, ‘其中柳鏞爲名者 號震澤 最蠻中傑物也 文章浩健 白是寒山片石’

쪽에 장점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대개는 포괄적이고 인상적인 비평에 머무르고 있다.

앞에서 거론한 예들은 대체로 일본 문학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주로 문인들 개개인에 대한 평가이다. 하지만 통신사들이 접했던 문인들이 당대에 일본을 대표하는 문인들이었음을 감안할 때, 앞서 거론한 것들이 일본 문학에 대한 통신사들의 인식을 어느 정도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통신사행이 회를 거듭하면서, 그들의 기행시문이 많아지고 그에 따라 일본전문이 조선 후기 지식인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일본에 대한 시각이 상당히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또 통신사들을 통해 국내에 유입된 일본의 시문집들은 일본에 대한 인식, 특히 문학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던 것 같다. 이덕무의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 그에게서는 통신사들이 부정적으로 기술하기 일쑤였던 시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그는 일본 문학계의 발전을 인정하였고 日本詩의 뛰어난 점을 칭찬하였다.⁵⁴⁾ 뿐만 아니라, 이와같은 일본 시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무조건 일본을 夷狄視하고 문화적으로 야만시하는 당시 지식인들의 태도를 비판하기도 하였다.⁵⁵⁾ 통신사들의 기행시문과 이같은 조선 후기 지식인들의 인식 변화와의 상관관계는 보다 정밀한 고찰이 있어야겠지만, 이들 기행시문에 나타난 일본 문화계에 대한 통신사들의 이런저런 관찰과 인식이 조선 후기 지식인들의 일본관이 보다 객관적으로 바뀌게 된 가장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요인이었음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IV. 맺음말

조선조의 사신들은 물론이고 조선조의 지식인들은 일반적으로 일본을

54) 元重舉의 [和國志]가 이덕무의 [靑莊館全書]에 인용되어 있고 [和國志]의 내용이 상당부분 이덕무의 [蜻蛉國志]에 수용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이같은 이덕무의 일본문학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원중거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55) 河宇鳳: [朝鮮後期實學者의 日本觀研究], 一志社, 1989.

文化屬國視하는 우월적 일본관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통신사들이 일본에 머무는 동안 일본인들이 보여준 詩文 및 書畵에 대한 지나친 선호현상과 일본 문사들과 詩文唱和를 하면서 느끼게 되었던 문학적 우월감은 우리와는 판이한 일본의 풍속을 보면서 느꼈던 도덕적 우월감과 함께 조선조 지식인들의 文化屬國觀을 지탱해준 두 개의 큰 지주였다고 할 수 있다.

통신사들은 일본의 문학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유를 日本의 身分制度와 文章讀法, 音韻上의 特異性, 한문학에 대한 집권층의 무지와 무관심 등에서 찾았다. 통신사들은 대체로 일본의 문학적 수준을 '소경이라 해도 좋을' 정도로 저열한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통신사행을 통한 양국간의 문학교류가 점차 활성화되고, 또 통신사를 통해 일본 문인들의 시문이 국내에 알려지게 되면서 단편적이긴 하지만 일본의 문인이나 그들의 작품 그 자체에 대해 보다 깊은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그 구체적인 예로써 元重學의 [和國志]와 南玉의 [日觀記] <總記>條를 들었다. 그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일본의 문학을 독립된 항목으로 설정해서 기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일본문학에 대한 조선후기 지식인들의 인식 변화를 짐작할 수 있었다. 일본에 대한 인식 변화가 닮아난 일본의 문학에 대한 인식 전환에서 촉발되었다는 점은 한일간의 문화교류사에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

일본의 문풍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관점을 엿볼 수 있었다. 우선 일본 문인들은 문에 있어서는 唐宋古文, 시에 있어서는 唐詩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조선이 새로운 문학사조로 나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여전히 唐宋八大家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다음으로는 일본인들이 성물에 어둡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본 문인들은 시보다는 산문에 특징이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인명·지명을 빌려 시문을 짓는 것에 대한 논란은 우리나라에서도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것인데, 통신사들 역시 일본 문학의 이같은 경향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통신사들은 대체로 일본의 문학이 아직 저급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산문보다는 시에 대한 비판이 두드러져

보인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조잡하고 막혀서 말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억지로 꾸민 것이 많아 아예 거론할 가치조차 없는 것으로 혹평하는 경우가 많았다. 호의적인 평가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는 몇몇의 문인에게만 한정되어 있었다. 산문에 대해서는 시에 비해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 이는 주로 문장의 소박함과 솔직함, 해박함과 풍부함 등과 관련된 것이었다. 그리고 시와 관련된 긍정적인 평가는 주로 표현상의 재치와 서정성, 平順함, 精峭함과 운치있음 등이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산문에 대한 평가는 그다지 눈에 띄지 않고 시에 대한 印象의 短評이 대부분이었으며 특정 작품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대체로 문인 개개인의 시문을 포괄적으로 비평하고 있었다. 통신사들을 接伴하게 되어 있었던 太學頭 林道春의 가문이나 각 주의 記室에 대한 혹평하고 있는 것도 또 하나의 특징인데, 이는 아마도 시문을 통한 양국간의 대결의식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한다.

18세기 후반의 사행시문에서는 일본 문단에 대해 객관적으로 파악하려는 의식의 전환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원중거의 '詩文之人'처럼 예상외로 일본의 문학적 수준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점이 그 예이다. 비록 간략하긴 하지만 일본의 詩文 각 體의 원류를 밝히고, 18세기 후반의 대표적 일본시인들을 지역별로 거론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적어도 이 시기에 와서는 일본문학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통신사들을 통해 국내에 유입된 일본의 시문집들은 일본에 대한 인식, 특히 문학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던 것 같다. 이덕무의 경우처럼, 종래에 부정적으로 기술하기 일쑤였던 시조차도 높이 평가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일본 문학계의 발전을 인정하였고 日本 詩의 뛰어난 점을 칭찬하였으며, 이와같은 일본 시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무조건 일본을 夷狄視하고 문화적으로 야만시하는 당시 지식인들의 태도를 비판하기도 하였었다. 통신사들의 기행시문과 조선후기 지식인들의 인식 변화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고찰이 필요할 것이나, 이에 대한 연구는 차후의 과제로 남겨둔다.